

전 주세계소리축제 무대에 오르는 각계의 예술가들은 자기만의 어법으로 소리를 풀어낸다. 우리 고유의 전통 판소리와 음악은 이들로 하여금 정적으로 때론 동적으로 변주된다.

오는 2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오송제편백나무숲 등지에서 펼쳐지는 소리 축제에서 이들은 사람과 예술(음악·미술·문학 등) 그리고 자연을 배경 삼은 갈맞춤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미리보기

판소리, 다채로운 장르음악과 결합

20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은 판소리와 가요, 판소리와 무용, 판소리와 월드뮤직, 판소리와 팝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시도한다. 판소리 본연의 흥·신명·애절함은 유지하되, 여타의 장르와도 잘 어울리는 하모니를 연출함으로써 '모던 판소리'의 미래를 엿보고자 한다.

공연의 서막은 그리스·중국·이란의 국적으로 이뤄진 엔 호르데스가 연다. 무대에는 13세기 마르코폴로의 모험에서 영감을 얻은 동서양의 음악이 조우한다.

정보권과 날마루 무용단은 판소리와 록, 현대 무용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를 꾸민다. 파워 있는 소리와 관객들의 전율을 유도하는 현대무용가들의 아름답고도 합찬 몸짓이 무대를 수 놓는다.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와 전주시립합창단은 조조가 적벽강 전투에서 패한 뒤 돌아오며 한탄하는 적벽가의 '새타령' 대목을 소리 한다. 무대는 장중미와 비장미를 담아낼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춘향가의 이별가를 동서양 음악가들로 구성된 엔 호르데스의 연주로 들려주며, 여기에 박애리의 미성이 얹어져 이별가의 서정성은 극대화 된다.

심청이 아버지에게 대한 지극한 효심을 표현한 '아버지 들조시'는 발라드 황제 변진섭과 어린이 소리꾼들이 빚어내는 시간으로 훈훈한 풍경을 자아낸다.

故 오정숙 명창의 생전 공연영상과 수제자 김소영이 시공을 초월하며 빚어내는 감동의 무대도 마련된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위대한 예술의 길과 향기를 만나 볼 수 있다.

박현정과 string ensemble은 흥보가 화초장타령을 첼로·바이올린·더블베이스의 스트링앙상블과 하모니를 전한다. '화초장타령'의 익살스러운 감미로운 스트링앙상블의 선율로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는 시간.

또한 프랑스 거리악단에 둘러싸여 불리어지는 심청가의 명대목 '복을 두리둥'은 프랑스 관악기의 리듬이 뿜어내는 해학의 사운드에 유대평양의 익살과 연기력이 폭발하는 시간.

한영애와 최선&장인숙의 조합도 이채롭다. 소리꾼도 제대로 부르기 힘들다는 고난이도의 심청가 '벌피중류'를 소울 한영애의 음성으로 듣는 전무후무한 무대다. 한국무용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살풀이의 대가인 최선·장인숙 명무가 나란히 출연해 풍경을 날아다니는 공연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정해은 기자

가요·월드뮤직 등과도 잘 어울리는 하모니 연출 '모던 판소리' 미래 엿보기

그리스·이란 등 국적가진 '엔 호르데스' 서막 공연

유대평양·프랑스 거리악단 '복을 두리둥' 협연

한영애와 명무 장인숙씨 등 조합 화려한 볼거리 선사

초등교사 타악연주단 '한마루' 창단 10주년 맞아 기념연주회

초등교사 타악연주단 한마루는 창단 10주년을 맞아 '벚꽃향기' 즉 '벚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제목으로 기념연주회를 갖는다.

28일 오후 7시에 전주시 소재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1시간30분 가량의 비나리, 설장고, 쇠놀이, 신모듬합연, 사물놀이 판굿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해 줄 이번 공연은 초등교사이면서도 타악연주단으로 활동하는 한마루가 가진 끼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또 특별히 초청한 사단법인 나누리에술단의 축하공연도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을 선사할 것이다.

초등교사타악연주단 한마루 관계자는 "국악이 같이 호흡하고 추임새도 외치며 함께 하는 것이기에 연주자와 소통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객 여러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국악이 친숙하게 여겨지면 더 이상 '부담스러운 국악'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국악'이 되어 국악을 바라보는 교육환경과 사회문화가 바뀌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고창농악 기념비' 세워진다

23일 농악경연대회서 제막식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 고창농악의 역사적 가치와 높은 예술성과 그것을 올바르게 전해 주신 43명 원로 예술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고창농악 기념비와 조형물 제막식이 오는 23일 오전 9시 고창농악전수관에서 거행된다. 제막식 후에는 고창농악인들의 큰 잔치 제16회 고창농악경연대회가 곧바로 펼쳐질 계획이다.

상·하단부로 구성된 기념비에는 기념비문과 1985년 고창농악단 창설부터 1998년 고창농악보존회 창립까지 함께 해온 원로 어르신들의 성함, 1890년대부터 2017년 현재까지 고창농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혁이 새겨진다. 함께 세워질 고창농악 조형물 '굿·사람·삶'은 상·중·하단부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부에는 고창농악인들이 멋드러진 춤사위가 그려진 동굴과 거친 자연석이 얹어져 있고, 중단부에는 원로회원들의 자필 서명이 새겨져 있다. 고창농악 기념비와 조형물을 지난 2011년 세워진 고창농악 상회 황구연선생공적비 옆에 건립된다.

고창농악보존회 이명훈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고창농악 후원회원님들이 모아주신 후원



금으로 고창농악 기념비와 조형물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면서 "기념비와 조형물 건립을 통해 1985년 고창농악단 창단 이후 고창농악의 역사적 가치와 높은 예술성을 전승해 주신 원로 회원님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존회에 따르면 제막식에는 고창농악단을 창설한 이기화 전 고창문화원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살아계신 고창농악 원로 어르신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

같은 날 고창농악전수관 야외마당에서 펼쳐지는 농악경연대회에는 고창군 14개 읍·면 농악단 500여 명의 고창농악인들이 참여한다. 고창군민들의 화합과 신명의 힘을 한데 모으는 고창농악경연대회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고창농악을 보존·계승·발전시키는 고창농악인들의 가장 큰 잔치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 명사특강·취업박람회 개최

21일 여성교육문화센터서... 명사특강에 서진규 희망연구소장 초청

전북광역·전북여성새일센터(신수미 센터장)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여성취·창업인식전환 명사특강' 및 '희망잡(Job)고, 고고(gogo)페스티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명사특강에는 희망연구소 서진규 소장을 초청하여 '혁신적인 창조와 도전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미국 과출부 이민에서 출발해 허버드대 박사까지 마친 감동의 스토리를 전할 예정이다.

1948년 가난한 여장수 딸로 태어난 서진규 소장은 생계를 위해 가발공장 직공과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다가 1971년 미국으로 가정부 이민을 떠났다. 이후 미 육군에 입대, 소령 예편 후 42세 나이로 허버드대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신화를 이뤄낸 인물이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등 다수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이날 특강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뛰어넘고 허버드대학원까지 없이 달려온 생생한 경험을 통해 취업희망 여성들의 취업의지와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별관 1층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원 '희망잡(Job)고, 고고(gogo)페스티벌'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주)뱅크정밀항공, 동서콘트롤(주) 등 채용예정인 14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로 현장면접 및 채용이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30개 간접 참여기업은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취업 희망 여성들은 전문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수미 센터장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으로 성공적인 취·창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